

제3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
군산 선유도이근중 이장
(선유2구) 인터뷰

2020년 선유도 방문 관광객 수는 288만여 명(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으로 국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에서 깜짝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중심인 선유도는 인구 5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섬에서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선유도를 지켜온 이근중 이장으로부터 선유도의 매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사진. 임재우, 선유도에 물들다

신선도 놀며 쉬어가는 섬

고군산군도의 중심, 선유도

Q. 최근 선유도가 관광지로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관광지로서의 선유도가 가진 매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선유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파란 바다와 보석 같은 섬들이 어우러진 절경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선유도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중 새만금방조제와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등 주요한 섬들을 연결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2017년 개통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섬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선유도 남쪽의 선유봉과 선유도 위쪽에 자리한 망주봉과 남악산은 선유도의 대표 봉우리로 선유도의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죠. 선유 8경 중 하나인 '명사십리(明沙十里)'는 선유도 해수욕장 일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천연 해안 사구 해수욕장이라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운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높은 파도가 없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선유1구 명품둘레길과 기도등대도 선유도의 대표 명소입니다.

선유도를 더 멋지게 즐길 수 있는 팁은 바로 자전거 여행입니다. 자전거로 선유도를 먼저 둘러보고 장자도를

거쳐 대장도나 무녀도까지 다녀오는 데 1시간이면 넉넉해요. 갯벌 체험도 추천합니다. 해수욕장 양쪽 고틀머리에 있는 갯벌에서 썰물 때 조개나 작은 게들을 잡을 수 있어서 아이들 체험 교육에도 좋아요.

Q. 2022년 8월에는 선유도를 중심으로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제3회 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치르신 소감과 앞으로 섬의 날 행사가 어떤 행사로 자리 잡기를 바라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사 전체적으로는 불꽃놀이와 드론쇼가 펼쳐지는 등 화려한 이벤트로 선유도가 주목받았지만, 선유도 주민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가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선유도 홍보를 위해서 공방 제품 판매 및 체험 부스가 마련되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섬의 날 행사가 더 규모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주민 주도 섬 발전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행사 기간에 열렸지만, 섬 주민들 간에 서로 토론하고 인적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섬 주민 간의 물꼬를 트는 방법을 모색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섬 주민이 주축이 되는 행사로 섬의 날이 전문가와 행정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폭 넓게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있는 국가행사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Q.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섬 정책 발굴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작년에 개원하였는데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름 개원 소식을 듣고 섬 주민으로서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섬이 많은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행정 지원이 있겠지만, 섬이 적은 지역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와 정책과 섬 주민의 요구사항을 중간에서 잘 조율하고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Q. 이장님께서선 선유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더 발전하는 선유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망주봉 주변으로 성장해왔던 고려시대의 역사와 선유도 우체국 뒤편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시대 고군산진의 흔적을 통해 얼마나 이곳이 예전부터 번성하였던 곳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관심을 통해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강조한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선유도, 섬다운 매력을 지켜나가는 선유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개발을 지속한다면, 힐링을 바라며 선유도를 찾는 분들이 실망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요. 선유도가 본래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에는 우리 주민들이 꾸준히 이의 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